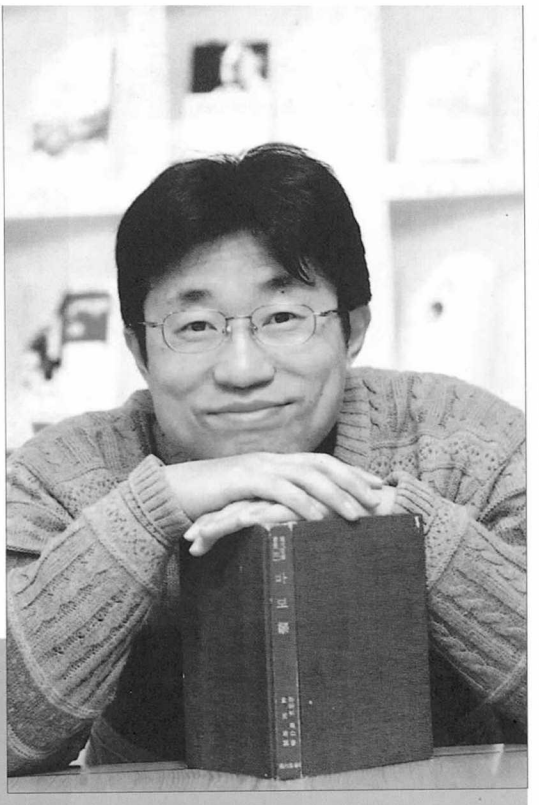
내서가의책한권

운명처럼 다가와 삶을 바꿔버린 한권의 책

유머강사 김진배씨가 뽑은 하비 콕스의《바보제》



"하비 콕스의 말처럼 환상이나 축제는 생명의 긍정입니다. 놀이나 환상을 잃어버린 사회는 동맥경화에 걸리죠. 획일적인 틀에 갇혀버린 사회가 더 위험해요.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변화를 긍정하는 것에 바로 축제와 익살의 해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5년 전이었죠. 이 책의 첫장을 펼치는 순간 운명의 계시를 만난 듯했어요. 길을 가다 마주친 여자에게 감전된 사람처럼 말예요."

유머강사 김진배씨(42, HDC유머개발교육원장)가《바보제》(하비 콕스 지음, 김천배 옮김, 현대사상사)를 뽑으며 이렇게 말할 때, 그의 표정은 자못 심각했다. 왜 아니겠는가. 자신을 남다른 길로 이끈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 책을 만날 때 그는 목하 고민중이었다. 성직자의 길이냐, 세속의 웃음 전도사가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호주머니에서 동전 꺼내듯 쉽게 결단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책이 해답을 보여줬다.

"그 두갈래 길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이 책이 깨우쳐줬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노동도 일종의 오락이 되는 그런 세계'라는 말이었죠. 노동과 오락이 조화를 이룰 때 삶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바보제'는 서양 중세시대의 축제를 일컫는다. 1년에 한번뿐인 이날 세상의 모든 관계는 뒤집힌다. 성당 청소부가 영주나 사제, 기사가 된다. 하지만 영주나 사제는 바보제를 폐지해 버렸다. 민중들의 축제에서 위험한 해방적 열정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하비 콕스의 말처럼 환상이나 축제는 생명의 긍정입니다. 놀이나 환상을 잃어버린 사회는 동맥경화에 걸리죠. 획일적인 틀에 갇혀버린 사회가 더 위험해요. 과거의 전통과 미래의 변화를 긍정하는 것에 바로 축제와 익살의 해방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가 강의·저술·방송에서 개구리 허리가 개미 허리 되도록 웃기면서도 꼭 빼놓지 않고 정색하며 하는 말이 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자, 삶을 긍정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깊게 패인 갈등의 골을 메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이 책을 수십번 읽었다. 페이지마다 밑줄과 메모가 가득하고 손때가 묻어 있다. 지금도 이 책에서 삶의 힘과 영감을 얻고 철학을 배운다. 그가 아직도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품고 여전히 꿈꾸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도 이 책 덕분이다. — 박천홍 기자

열린마당

가장 좋은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❶ 출판의 승부는 기획·편집에 있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에서는 경험과 識見을 갖춘 頂上의 편집자·출판미술가·사진작가 등이 온힘을 모아 '21세기를 준비하는 출판물'을 기획·편집하고 있습니다. 雄飛하는 동반자이기를 기대합니다.

❷ 베스트셀러 생활도서·유아도서 및 교구·오디오·비디오 기획·제작의 광범위한 실적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❸ 종합마케팅플랜에 근거한 표지·광고·팜플렛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기획·원고작성·번역·편집·디자인·제작代行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SAMDUK
삼덕미디어

高品質의 제작

이때까지는 큰일이나 작은 일이나
제판·인쇄·제본 등의 工程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고 인력부족 등으로
품질이나 납기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삼덕미디어에 맡겨 주십시오.
책임제작시스템으로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高品質의
출판물을 납기일에 어김없이 납품하겠습니다.

110-121 서울·종로구 종로1가45 서울빌딩601호
전화 : 739-0150(代) 팩스 : 739-0160
인쇄·제본공장 : 465-4707(代)